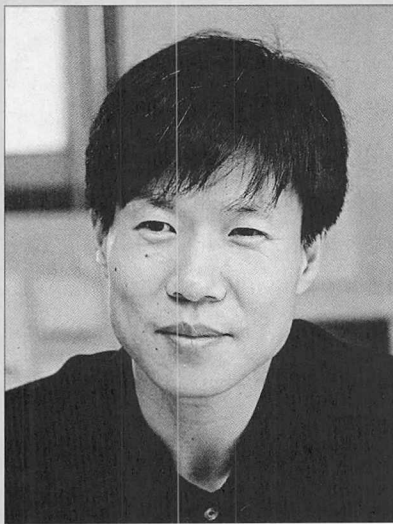


행복한 그림읽기로 이끄는 친절한 안내자

미술교양서 시대 연 이주현씨



이주현씨

“미술 관련서적은 꾸준히 나왔고, 대중적인 접근이 없지 않았습니다. 다만, 화제에 오른 것은 유명 화가의 수필집 정도였습니다. 굳이 의미를 부여하자면, 본격적으로 대중을 의식하고, 일반 독자의 시각으로 그림을 들여다본 경우는 제가 처음인 셈이죠.”

미술평론가 이주현씨(39, '아트스페이스서울' 관장)는 1994년 《20세기 한국의 인물화》(재원)를 펴내며 미술교양서 시대를 활짝 연 장본인이다. 그렇지만 정작 본인은 이런 의미부여에 대해 몹시 겸연쩍어한다.

“미술 관련서적은 꾸준히 나왔고, 대중적인 접근이 없지 않았습니다. 다만, 화제에 오른 것은 유명 화가의 수필집 정도였습니다. 굳이 의미를 부여하자면, 본격적으로 대중을 의식하고, 일반 독자의 시각으로 그림을 들여다본 경우는 제가 처음인 셈이죠.”

이제까지 이주현씨가 펴낸 책은 모두 5종. 이 중 작가론인 《클립트》(재원, 1998)를 제외한 나머지는 대중을 위한 ‘그림읽기’ 안내서면서, 신문·잡지 연재글을 묶은 것이 공통점이다. ‘수줍게 뒤돌아 선 누드’라는 부제가 붙은 《20세기 한국의 인물화》는 이당 김은호의 〈순종 황제〉부터 서양화가 박강원의 〈서울 사람〉에 이르기까지 나타난 변화무쌍한 한국인의 모습을 담았다.

대중을 염두에 둔 글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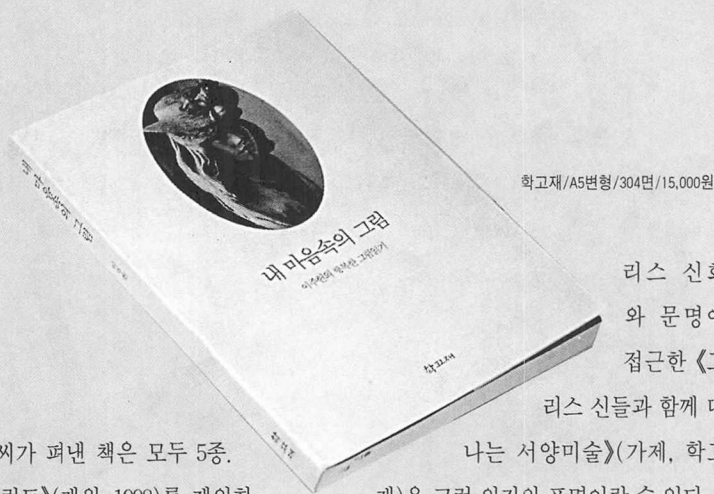
두권으로 된 《50일간의 유럽 미술관 체험》(학고재, 1995)과 그림에 관한 개인적인 독백을 담은 《내 마음 속의 그림》(학고재, 1997)은 ‘이주현의 행복한 그림읽기’로 부제가 같다.

“저는 기본적으로 대중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는 행위가 결코 낯선 게 아니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라는 점을 일깨우는 것이 제 작업의 핵심입니다. 부제목은 누구나 행복하게 읽을 수 있는 그림 이야기란 뜻이죠.”

그는 앞으로도 부제목을 계속 쓰고 싶다고 덧붙였다. 가장 최근작인 《미술로 보는 20세기》(학고재, 1998)는 20세기에 만들어진 미술 작품을 통해 지난 1백년을 되돌아보는 한편, 지난 세기 미술의 흐름을 추적한 책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주현씨의 책들이 모두 ‘살아 있다’는 사실이다.

“《50일간의 유럽 미술관 체험》만 해도 간략한 정보를 담은 탓에 수명을 3~4년쯤으로 예상했습니다. 한데 여전히 꾸준히 팔리고 있습니다. 아직 그 책을 능가하는 미술관 안내서가 나오지 않았다는 얘긴데, 그럴수록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주현씨는 세가지 측면에서 나름의 책무를 다할 생각이다. 우선, 미술과 교양을 접목한 ‘행복한 그림 읽기’가 지속된다. 미술을 매개로 그



학고재/A5변형/304면/15,000원

리스 신화와 문명에 접근한 《그

리스 신들과 함께 떠나는 서양미술》(가재, 학고재)은 그런 의지의 표명이랄 수 있다.

7월 중순 이전 출간을 목표로 집필이 한창 진행중인 이 책은 이전의 ‘그림 읽기’와 다른 점이 있다. 전작에 가까운 집필 방식이 그러하더라도 내용 중 일부가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발표됐을 뿐이다.

아울러, 여행과 미술을 잇는 작업도 병행한다. 개별 미술관, 명작을 소장한 교회, 화가의 발자취, 작품의 배경이 되는 장소 등을 자세하게 소개하는 안내서를 시리즈로 낼 예정이다.

미술품 거래 양성화에 관심 기울여

“우리 미술교양서 독자들은 아직 저자에게 많이 의존하는 편입니다. 음식에 비유하자면, 재료뿐만 아니라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요리까지 다 해주길 바라지요. 또한, 감성적인 접근에 민감합니다. 이런 식의 작업이 쌓이면 머지 않아 유럽식의 전문 교양서를 소화해낼 날이 올 겁니다.”

이주현씨에게는 전인미답의 분야를 개척하는 야심찬 계획이 있다. 경제적 관점으로 미술에 다가서는 일이다. 음성화한 미술품 거래 시장을 양지로 끌어내겠다는 복안이다. 이씨가 미술품 거래의 객관적 판단자를 자임하는 것 역시 미술 대중화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미술 여행 참가자로부터 미술품 구입에 관한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누군가 공개적으로 발언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방지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수집가와 애호가들에게 돌아오니까요. 관람객이 미술 감상에 눈을 뜨면 반드시 작품을 구입하게 됩니다.”

이주현씨가 추구하는 세갈래 길은 하나의 목표를 향한다. 모든 사람이 예술 안에서 늘 밝고 건강한 생활을 누리기 위함이다. — 최성일 기자